

#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재환(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안태욱(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 국 문 요 약

청년들에게 올바른 창업을 위한 준비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창의적인재 육성과 배출은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창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증가율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적 창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가적 경제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조형, 기회형 창업가 203명 청년 CEO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는 사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인프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활용만으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을 갖춘 청년CEO는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지 않아도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의 매개효과 역할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창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가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창업준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창업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핵심주제어: 청년창업, 기업가정신, 창업준비, 창업인프라 활용, 사업성과

## 1. 서론

‘창조경제’시대 신 성장 동력으로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창업가 지원과 육성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기술창업은 국가의 생존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4). 하지만 젊은 세대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의 위축으로 창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점진적 고용기회 감소로 특히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선호하는 진로 쏠림 현상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든게 만들고 창업생태계를 원활하게 순환 작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Lee, 2009).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사회적비용도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 속

에 자금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숫자를 늘리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창업문화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이 출현하여 선의의 경쟁과 함께 혁신함으로써 긍정적 순환과정으로 구축해야한다(Reynolds et al. 2002)

창업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준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다. 최근같이 창업이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시대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단순히 이용할 목적으로 시작하는 무모한 창업이 많다. 하지만 창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창업역량 없이 너무 쉽게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실패율(폐업률)은 점진적으로 높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123@empas.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 박사과정 수료 군산대학교 창업전담교수, gyver003@hotmail.com)

· 투고일: 2016-02-05 · 수정일: 2016-02-19 · 게재확정일: 2016-02-26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3).

창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올바른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마인드와 인식의 변화, 양질의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창업 아이템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작금에 청년창업가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창업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마인드 교육에서 생태계 인프라 활용까지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 성장 동력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가정신, 창업 준비, 창업 인프라 활용이 사업성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연구들이 일반창업에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이 사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주로 연구한 반면, 조사대상자를 20~30대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창업이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창업준비 요인을 다루어 창업이전부터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창업인프라가 사업성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한 실증연구이다.

##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2.1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가

최근 창조경제시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가에 관련된 학자와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Kang(2011)는 혁신성은 외부환경에서 불확실성과 자원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활동,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Lyon et al.(2000)은 진취성(Proactiveness)을 미래지향적 낙천적사고와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며 경쟁자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와 제품등을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 등은 사업성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Park et al. 2011). Rauch et al.(2009)은 단일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가(재무적, 비재무적 등)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독립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사업성가와 직접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가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인프라 활용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창업지원 등 지원정책으로 양적증가로 기업 수는 증가하여 기반은 확충하였지만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 및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활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노력중이다(Kim, 2014). Lee et al.(2012)는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청년 기업가정신(국가기관, 대기업 등 안정적 직장선호) 약화, 사회전반에 만연한 도전의식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설립, 창업선도대학, 청년사업사관학교 설립 등 다양한 지원과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멘토링, 초기 창업자금(엔젤투자) 지원부족 등 창업 인프라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Song, 2012).

Yoon(2012)의 연구결과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혁신성에 영향이 있으며, 위험감수성에는 정(+)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et al.(2015) 창업 인프라 중 멘토링은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 향상과 사업성과 도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정의했다. 이와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했다.

**가설2: 기업가정신이 창업 인프라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창업준비와 사업성가

Kim(2013)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할 계획을 세워 실행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 하고 수정 보완하는 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며 이를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실패한 창업기업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있으나, 기획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획 단계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인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성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획, 즉 창업 준비단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ee & Park, 2011).

창업 준비는 창업아이템 구상, 발상에서부터 시작하며 준비인지도 등 절차를 이해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창업 실패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창업준비는 창업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Jeong & Kim, 2001). 창업에 있어서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창업을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많이 시도하고 선부른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Kim(2013)은 창업할 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받는 행동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Lee & Park(2011)은 창업기업이 초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창업 준비 단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준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통해 창업준비가 사업성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창업준비는 사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창업준비와 창업인프라 활용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기반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존하는 과정이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준비, 창업 생태계 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Kim(2014)은 성공적인 청년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 전 단계인 창업 준비 단계 강화가 필요하며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아이디어의 중요성 보다 사업진행에 오는 어려움과 창업 준비절차와 창업이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am et al.(2013)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 인프라 활용으로 창업자에 도움되는 각종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중요한 창업준비 시기에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준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기술, 자금, 인력, 업종선택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최근 창업분야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사업성파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창업준비와 창업 인프라 활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창업준비와 창업 인프라 활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 창업인프라 활용과 사업성파

창업 인프라 활용에는 창업가들이 가장 필요한 자금지원, 전문가의 컨설팅, 각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멘토링 등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Lee & Kim(2007)는 창업기업이 필요한 정부의 자금 지원과 기업의 대응투자가 창업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하였는데(IT 중소벤처기업 대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생존기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Jeon(2009)와 Kim(2006)은 컨설팅 지원이 재무적성파를 매출액증가, 순이익 증대, 부채비율 감소, 자금확보, 투자수익률 확대, 현금흐름개선등으로 세분화 하여 연구하였다. Park & Kim(2014)는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멘토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효과적인 멘토링과 멘토역량은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부합하고 창업멘토링의 기능과 체계적인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5: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6 창업인프라 활용을 매개로 한 기업가정신과 사업성파의 관계

Kim & Noh(2011)는 구성원의 진취성, 혁신성은 지식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업성파에도 항상 시킬 수 있으나, 위험감수성은 개인별 노하우 지식 측정 등의 내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창업에서 지속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모두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Kang, 2011).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생존, 성장하게 하며 탄생시키는 기업성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에(Lee, 1999) CEO의 기업가정신은 주목해야 할 분석 단위라고 볼 수 있다(Naffziger, 1996).

**가설6: 창업인프라 활용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파간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2.7 창업인프라 활용을 매개로 한 창업준비와 사업성파의 관계

Lee(2008)는 창업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의 자금지원은 기업의 성과, 즉 기술재산증가, 수익성 개선, 경쟁력 우위 확보 등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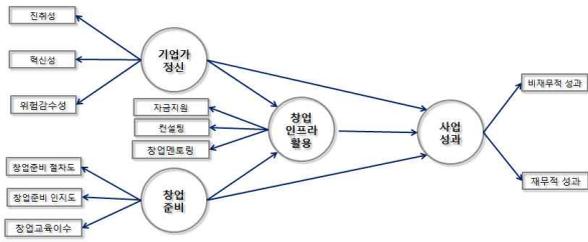
Kang & Ha(2012)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창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는 사업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단기(일회성) 창업교육 보다는 교육 사례가 많거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계화된 집중 창업교육이 사업성파 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Jeon, 2012; Jung, 2012; Lee & Hwang, 2010). Kang & Ha(2012)는 체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준비는 창업 이후의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창업준비의 하위 요소 창업교육이수여부가 사업성파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정부와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는 창업교육은 경영성파, 특히 순이익과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Cho & Kim, 2010). 창업 준비를 업종선택, 기술력, 인력, 사업장 위치,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철저한 창업 준비요소는 창업시작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Nam, et al. 2013). 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업인프라는 창업준비와 사업성파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7: 창업인프라 활용은 창업준비와 사업성파 간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함과 동시에 창업인프라 활용을 매개변인으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젊은 20~30대(20~39세)<sup>1)</sup> 중에서 남녀 구분 없이 창업을 한(사업자 등록)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고용창출 및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 즉 대부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11월 한달동안 500부 설문지 배포하고 203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시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선정된 청년창업가, 콘텐츠 진흥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정보통신부 벤처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 창업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강남 테헤란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벤처협회, 마포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설문응답자의 기초통계 특성

	N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나이	203	23	39
성별	203	1(남)	2(여)
학력	203	1(중졸이하)	5(대학원이상)
기업형태	203	1(개인)	2(법인)
설립연도	203	2000	2011
창업유형	203	1(신규)	4(기타)
직원 수	203	1	100

20대가 28.5%, 30대가 71.5%로 30대가 많으며, 남성이 66.5%, 여성이 33.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 0.5%, 고졸 4.4%, 전문대 7.4%, 대졸 68.0%, 대학원 이상이 1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기업 73.4%, 법인 26.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9~2011년까지 창업기업의 비율은 88.2%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형태로 주도적으로 창업한 경우 91.1%,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4.9%, 기타 3.9%, 가업 상속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5인(85.7%) 미만인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년창업가들은 3년 미만인 초기 창업가자 대부분으로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s)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표본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2>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alpha$
창업인프라활용 1	.623				.701
창업인프라활용 2	.886				
창업인프라활용 3	.854				
창업준비 1		.725			.626
창업준비 2		.763			
창업준비 3		.781			
기업가정신 1			.801		.660
기업가정신 2			.805		
기업가정신 3			.708		
사업성과 1				.870	.678
사업성과 2				.870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직교 3회전 방법(Varimax Method)을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기초적합지수(GFI, AGFI, RMR)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였으며, SPSS18.0과 AMOS21.0 통계패키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판단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값(Approximate Chi-square)을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현생법상에는 '신규청년실업자'를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의 학교 졸업 후 또는 전문 훈련과정을 이수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규 실업자로 규정

###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조작적 정의는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적 구성을 실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변수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둘째, 창업준비특성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셋째,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사업성과(고용성과, 재무성과), 마지막으로 창업인프라 활용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청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특성이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창업 인프라 활용을 통한 매개효과로 사업성과에 간접효과를 주는 매개 모형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두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구성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구성개념들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 편차	기업가 정신	창업 준비	창업 인프라 활용	사업 성과
기업가 정신	3.68	0.407	1.000			
창업준비	3.64	0.550	0.348**	1.000		
창업인프라 활용	3.11	0.939	0.059	0.354**	1.000	
사업성과	3.60	0.551	0.242**	0.289**	0.149*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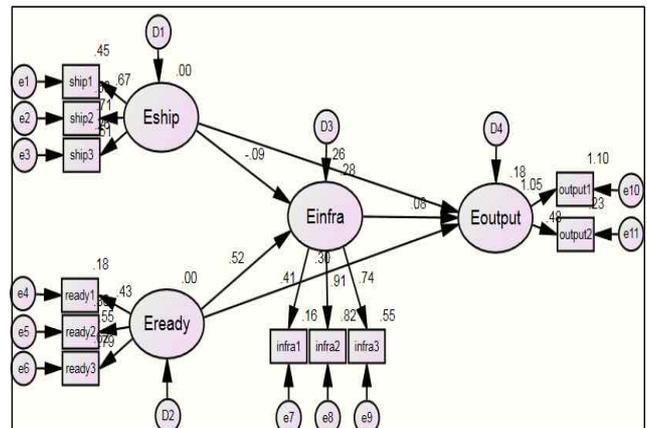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잠재 변수를 가진 모형을 설계했으며,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분산추출(AVE) 및 개념 신뢰도(C.R.)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모형의 평가를 위한 주요 측정치로 이용되며 0.7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하며 평균분산추출은 분산의 크기가 0.5이상인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이다(Choi, 2014).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인프라 활용 요인의 AVE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각각 0.4370이지만 나머지 모형의 타당도는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위 결과로 인하여 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변수	표준화 적재량	표준 오차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
기업가정신1	0.586	0.175	.587	.801
기업가정신2	0.538	0.127		
기업가정신3	0.322	0.217		
창업준비1	0.258	0.247	.542	.751
창업준비2	0.47	0.285		
창업준비3	0.772	0.216		
창업인프라 활용1	0.361	1.03	.437	.677
창업인프라 활용2	0.895	0.238		
창업인프라 활용3	0.738	0.63		
사업성과1	1.006	-0.003	.756	.843
사업성과2	0.438	0.392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의 결과는 초기모형(Default Model), 포화모형(Saturated Model),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의 세 가지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한 초기 모형의 값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GFI, AGFI, NFI, RMR, RMSEA 등이 지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GFI, AGFI, NFI의 경우 0.8 이상이면 적절하며, 0.9 이상일 경우 이상적이다(Bagozzi & Yi, 1988; Bagozzi & Dholakia, 1999).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의 결과 <그림 2>와 같고, 본 모형의 적합도에 관한 설명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값은 125.640(df=39, p=.000)이고, RMR(잔차평균자승이중근)값은 .061, GFI(적합지수)값은 .900, 증분적합도 NFI(표준적합지수)=.779, RFI(상대적합지수)=.689, CFI(비교적합지수)=.831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용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표 5>로 정리한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 <sup>2</sup>	GFI	CFI	RMR	RMSEA	RFI	NFI
값	125.640 (df=39, p=0.000)	.900	.831	.061	.105	.689	.779

이는 기초적합지수 적합도 분석결과 수치는 연구 모형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은 표본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된다.

가설의 검증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계수 0.258, C.R.=2.110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다음 가설2로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계수 -.086, C.R.=-1.012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다음 가설3

'창업준비는 사업성과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계수 .298 C.R.=2.000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다음 가설4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계수 .518, C.R.=4.415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4 역시 채택되었다. 다음 가설5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표준화계수 0.75, C.R.=0.810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따라서 가설5는 기각되었다.

<표 6> 연구가설 검증결과 요약

구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값	판단
가설1	기업가정신 → 사업성과	.258	.108	2.110	.035	채택
가설2	기업가정신 → 창업인프라 활용	-.086	.192	-1.012	3.11	기각
가설3	창업준비 → 사업성과	.298	.082	2.000	.045	채택
가설4	창업준비 → 창업인프라 활용	.518	.168	4.415	***	채택
가설5	창업인프라 활용 → 사업성과	.075	.036	.810	.418	기각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6, 가설7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교하여 매개모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규명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수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회귀분석에 비해 분석범위가 넓다. 분석결과는 <표 7, 8> 아래와 같으며,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AMOS Indirect, Direct & Total effect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7> 가설6 검증결과 요약

		기업가정신	창업인프라 활용
창업인프라 활용	직접효과	-.086	-
	간접효과	-	-
	총효과	-.086	-
사업성과	직접효과	.258	.075
	간접효과	-.006	-
	총효과	.251	.075

가설6은 창업가 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효과는 총효과 0.251보다 높게 나타나 창업인프라 활용은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 간의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8> 가설7 검증결과 요약

		창업준비	창업인프라 활용
창업인프라 활용	직접효과	.518	-
	간접효과	-	-
	총효과	.518	-
사업성과	직접효과	.298	.075
	간접효과	.022	-
	총효과	.337	.075

가설7은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0.298로 총효과 0.337보다 낮다. 따라서, 창업인프라 활용은 창업준비와 사업성과 간의 정(+)의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V. 결론

창조경제시대 청년창업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인프라 활용의 매개역할에 관한 인과구조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주제를 통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요인과 사업성과간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창업인프라 활용을 매개변수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발적 의지로 리스크를 안고 변화를 모색하고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창업가는 사업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기업가정신 요인들이 창업인프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이다. 셋째, '창업준비는 사업성과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창업하기전 창업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창업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졌을때 창업인프라 활용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적극 활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창업인프라 활용 요소만으로 창업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여섯째, 기업가정신과 사업성과간의 창업인프라 활용이 정(+의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이 되었다. 단순히 창업인프라 활용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는 반드시 창업인프라 활용지원,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해석 된다. 청년창업가의 경우 창업인프라 활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창업가 본인의 자질과 역량, 특성, 기업가정신 함양하여 창업에 매진하고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준비가 사업성과간의 창업인프라 활용이 정(+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청년들이 창업 준비 할 때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창업인프라 창업멘토와 상담, 자금,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사업성과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창업인프라 활용이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연구의 한계로 기술창업, 지식서비스 대상 중심이어서 향후 다양한 분야 즉, 제조 및 기타 업종에 대한 확장 연구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적 조사와 의견이 상대적으로 편향되어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인프라 활용1 항목이 AVI 0.5이하로 다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더욱 고취시킬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통해서 젊은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경험과 창업생태계조성, 자금 등 창업인프라 활용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창업가들이 창업 성공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창업문화와 창업의 순기능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창업생태계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인프라가 있어야 하겠다.

## REFERENCE

Bagozzi R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agozzi R. D.(1999). Goal Setting and Goal Striving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63, 19-32

Cho, J. H. & Kim, C. J(2010). A Study on Performance Factors on the Small Busines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1), 127-144.

Choi B. H (2014) Workshop Report for Amos 20.0 use Method, Busan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Jeon, G, S.(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E and Venture Enterprise*,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Jeon, I. O.(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103-114.

Jeong S, H & Kim, H, R.(2001).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4(2), 9-10.

Jung, D. S.(2012).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Business Review*, 76(-), 373-394.

Kang, B. O.(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ang, Y. U & Ha, K. S.(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9), 239-251.

Kang, Y. W. & Ha, G. S.(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9), 241-243.

Kim, C. H., Kang, B. O. & Yun, H. B.(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135-1147.

Kim, C. K., Lee, C. S & Kim, J. S.(201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21(5), 63-86

Kim, D. U. & Sung, C. S.(2013).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Nascent Behavior and intention of Social Responsibility-Focus on Meister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1), 25-46.

Kim, D. Y.(2014).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Young Start Up Policy, *Korean Business Review*, 7(2), 19-36.

Kim, H., Park, S. M & SUL, W. S.(2008). A Study on the Validity of Technology Innovation Aid Programs for 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3(10), 946-961.

Kim, I. S.(2006). A Study on Consulting's Role for Improvement of SMES' Competitiveness and Strategy for Development of Consulting to SM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06-12).

Kim, Y. S. & Noh, S. B.(2011).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erprise Performance in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5(1), 85-112.

Lee, C. W(1999). The Role of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 Performanc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D. M.(2008). *The Effects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BSC Integr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Compani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Lee, J. I & Kim, C. J.(2007). The Econometric Evaluation of the Impact of R&D Incentive on Technological Outcome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0(1), 1-21.
- Lee, K. G. & Park, H. P.(2011). The Study of the Value Capability Index(CvI) for Successful Business, *Journal of Sustainability Research*, 2(3), 11-28.
- Lee, S. J. & Hwang, B. Y.(2010).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1), 19-44.
- Lee, S. M.(2009). Solving Youth Unemployment through Social Entrepreneurship,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4(3), 33-53.
- Lee, Y. J., Jung, G. C., Jang, B. Y., Lee, M. G., Kim, Y. H., Kim, S. G., Jung, W. J & Lee, S. H.(2012). Vitaliza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by Inspiring Entrepreneurship,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olicy Institute, *Policy research*, 12, 1-275.
- Lyon. D. W., Lumpkin, G. T & Dess, G. G(2000) Enhanc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esearch: Operationalizing and Measuring a Key Strategic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management*, 26(5), 1055-1085
- Naffziger, D.(1996). Entrepreneurship: A Person Based Theory Approac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2, 21-50.
- Nam, J. M., Chun, B. J. & Park, J. W.(2013). Success Factors of Start ups-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5), 27-43.
- Oh, J. W., KO, B. S & Kang, J. K.(2015).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s on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29-141.
- Park, J. W., Kim, J. H & Yun, I. C.(2011).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rketing Orientation on the Innovation Success and Performance in Firms,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5(2), 243-265.
- Park, Y. H & Kim, Y. T.(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8(5), 513-528.
- Rauch, A., Wilkund, J., Lumpkin, G. T & Frese, M.(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 Reynolds, P. D., Camp S., Michael, C. S., Bygrave, W. D., Autio E & Hay, M.(200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1 Executive Report*, London Business School and Bobson College-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London Business School.
- Song, J. G.(2012). *Science&Technology Policy 10 subject of 2012*, STEPI, 85.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Korea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5(2), 1537-1557.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Park, Jaehwan\*

Ahn, Taeuk\*\*

## ABSTRACT

Younger starters to be ready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raising and producing potential creative person who demonstrates entrepreneurial spirit are not only important factor for added value creation along with national growth but also economic development to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Thereby, a lots of interests and supports are focused in entrepreneurship and the startup activities. However, to create business achievement, we should nurture successful entrepreneurship based on using infrastructure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duced by aggressive investments and supports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s empirical test of 203 young CEO of techniques which possibly create added value and national development, inventive type in knowledge service and opportunity type.

Research finding is that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have meaningful effects on the performance and the ready state. Entrepreneurship has no direct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Entrepreneurial preparation has meaningful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We induced that it is hard to earn business achievement by only using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in that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has no effect on business achievement. Lastly, entrepreneurship infra system has no relationship as mediating effects with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achievement in mediating effect test. While young CEOs with entrepreneurship create business achievement without using entrepreneurship infra, entrepreneurship infra has relationship as mediating effect with effect of entrepreneurial preparation on business achievement. Namely, we induced the result that using entrepreneurship infra aggressively improve achievement in entrepreneurial preparation. Through this study, we ne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young CEOs and effort to develop entrepreneur's competence to improve achievement and we concluded that approaching systematically in entrepreneurial preparation and using various entrepreneurship infra aggressively ar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achievement.

*Keywords : Youth CEO,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preparation,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Business achievement*

---

\* First Author : Park, Jaehwan.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jaypark@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 Ahn, Taeuk. Professor, Business Foundation Educ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gyver003@hotmail.com